

8장/ 세상 법정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소송문제 - 고전6장)

I. 오늘의 포인트)

1.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했던 소송 문제를 살펴보고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2.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내용을 들은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과연 바울의 전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II. 교회 내적 문제(2) : 다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함.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간의 고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적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1.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

공동체 내부에 고발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교회는 해결하려고 한다. 그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 1) 교회 안에서 해결한다.
- 2)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한다.
-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그 마지막은 세상 법정이다.

2.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적 방법 - 세상 법정에 성도를 세우지 말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땐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때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보인다. 오늘날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해결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3.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성도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

- 1)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 받기 때문이다.(고전6:1)

정리) 세상의 법정이 과연 불의한 곳인가?

바울은 세상 법정을 불의한 곳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정이라고 하면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곳인데 왜 바울은 세상 법정을 불의한 곳으로 볼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이나 의롭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유무에 있지 않다.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한다. 즉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의한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을 넘어선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법정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느 곳이든 불의한 곳이 된다.

당시의 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 또한 옳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재판관들을 은연중에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바울의 생각은 현재 교회의 일은 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역사 속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서 판단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바울은 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만든 이 교회가 오히려 다시 세상 즉 거룩하지 않는 것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바울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한다.

바울의 생각에 전적인 동의를 한다.

2) 세상이 성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본다.(고전 6:2)

실제 세상은 성도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야할 곳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어둠은 어둠을 심판할 수 없다. 어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올 때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마5:14)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이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심판할 수 있는가?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거룩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 받는 것을 거부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세상과 다른 삶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세상 법정에 세워져 판결을 받더라도 모두 실패이다.(7절)

표준새번역)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헬라이어)

“h[dh me;n ou{lw" h{tthma”(에데 멘 홀로스 헛테마 - 이미 완전히 실패)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이것은 실패라는 것이다.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하나 되기란 어렵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세상 법정 판결은 모두가 패배자 되는 것이다. 결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왜 세상 법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이 없어서 생긴 일로 보고 있다.(5절)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회의 현안들을 해결해 줄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줄 오늘날의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세상의 법정에도 서슴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교회는 그것을 해결해 줄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다. 점점 더 교회 안에는 해결해 줄 하나님이 세운 지혜자가 없다. 이런 교회공동체가 될 때 교회의 분쟁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III. 오늘의 적용

1.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판단 받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빛을 비춤으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2.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고 한탄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신앙의 어른, 지금도 살아 있는 하나님을 매개시켜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
3. 지금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에 물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둘 다 패배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